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 사업 '안갯속'

다른 지자체선 국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실증 진행
제주, 전문기관 육성 고사하고 전문인력 확보도 못해
정부 등 올해 친환경선박 보급 3623억 원 투입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1년부터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1년 11월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자체경제연구원, 제주대학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전기소형선박추진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주형 친환경선박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사용 배터리 선박 적용 기술 개발, 재사용 배터리 선박 적용 시험평가 기술개발, 전기추진시스템 기술개발, 실증연구단지 구축,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전략으로 내걸었다. '제주형 친환경선박'은 총 톤수 10t 미만의 재사용 또는 신폼배터리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추진 선박이다. 하지만 전기소형선박추진실무협의체 구성 1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국비지원 사업 발굴이나 제주형 친환경선박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지난해 5월 부산테크노파크 등과 암모니아를 친환경선박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이 실증 사업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98억원을 포함해 336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테크노파크를 친환경선박 개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선박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며 "부산에 있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은 규모가 큰 내·외항선으로 제주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선박은 10t 미만의 연안어선, 중소형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시장이 친환경선박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친환경선박 보급에 3623억원을 투입해 60척 건조 및 322척 설비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 도,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 공모결과 '제주4·3, 견뎌 냈으니 / 75년, 딛고 섰노라'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슬로건 공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462건 대비 215건 늘어난 677건이 접수됐다. 슬로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산시에서 응모한 최우수작과 함께 우수작(2건)에 '4·3은 일깨움, 인권은 꽃피움, 평화는 북돋움'(인천)과 '아로새긴 4·3정신! 아름다운 평화의 봄'(인천)이 선정됐다. 장려작(5건)에는 '4·3의 고운 숨결로/평화의 힘찬 물결로'(충남),

'상생의 손길 화해의 맘길, 하나되는 제주4·3!'(인천), '4·3의 정신, 희망의 숨결로 평화의 물결로'(인천), '4·3 희생의 통곡소리, 이젠 평화의 합창으로!'(강원), '일어섰던 4·3의 봄, 활짝 피는 평화의 꽃'(인천)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제주4·3, 견뎌 냈으니 / 75년, 딛고 섰노라'는 4·3 7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제주4·3의 정신을 다지고 잘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정된 슬로건은 홍보차지, 선전탑, 현수막, 홍보자료, 홍보영상 등 각종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도, 8월 31일까지 의견 접수

제주자치도는 일상생활·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 과제는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 방안),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공모는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업, 단체는 도와



무사안녕·풍요 기원하며... 31일 제주시 관덕정 앞에 '2023 2월 1일 제주시 관덕정 앞' 입춘춘동이 설치돼 있다. >>관련기사 8면 이상국기자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최종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10~11월쯤 시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도정 올해 '도민 중심' 정책 강화 2일까지 도지사 업무보고... "도민 공감대 형성 중점"

민선8기 제주도정이 도정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새해 업무보고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도민 중심 정책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 회의실에서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1차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도지사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새해 업무보고는 실·국의 핵심정책과 혁신방안 등 한해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대내외 여건 등을 공유하고 정부 업무보고와 연계한 신규 사업 등이 보고된다. 특히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제주도는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전

환점으로 삼고 행정의 관행을 탈피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정부'를 마련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올해 각 부서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연계한 월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보고 첫날에는 제주경제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 분야의 첫 보고부터 정책의 주체인 도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사고"라면서 "정책 구성단계에서 행정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민 중심의 정책을 수차례 주문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348
잠정집계 31일 누적 38만0287
<7시 기준> 누적

반려동물 한 해 5000여 마리 유기... 4면 / 주택매매거래 급감... 6면

연동365일의원

진료 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6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